

서울시민 54.2% 가족관계 만족.. 65세 이상여성가구주 ↑

- 서울시, 「서울시민 가족관 및 가족구조 주요변화 분석현황」 30일(목) 발표
- 서울시민 전반적인 가족관계에 대해 만족 54.2%, 보통 41.4%, 불만족 4.4%
→ 가족관계별 만족률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배우자부모 순으로 높아
- 만 13세이상 34.1%는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남성 27.9%, 여성 39.9%
- ‘12년 평균초혼연령 男32.4세, 女30.2세...10년 새 남성 2.3세, 여성 2.4세 늦어져
- 1~2인 가구 12년 새 68.4%↑, 가구 비중 2000년 33.3%→2012년 48.9%
- 65세 이상 가구주 12년 새 2.2배 증가...2012년 일반가구 중 16.3%
- 여성가구주 12년 새 70.8%↑, 2012년 일반가구 중 29.1% 차지

- 서울시가 서울시민의 가족관 및 가족구조 주요변화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2년 만 13세 이상 서울시민 54.2%는 전반적인 가족관계에 만족하고 있었으며, 34.1%는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 12년 전과 비교할 때 1~2인 가구가 68.4%나 증가하여 전체 일반가구 중 절반(48.9%)에 육박하고, 65세 이상 가구주와 여성가구주가 대폭 증가한 것이 눈에 띈다.

- 서울시는 시민의 가족관 및 가족구조의 변화상을 짚어보고 시의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통계청 자료(인구주택총조사·장래가구추계·사회조사¹⁾) 등을 분석한 「서울시민 가족관 및 가족구조 주요변화 분석현황」(e-서울통계 69호) 통계를 30일(목) 발표했다.

<2012년 서울시민 54.2%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 만족률 자녀>배우자>부모 순>

- 통계에 따르면, 2012년 13세이상 서울시민 54.2%는 전반적인 가족 관계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만족은 4.4%로 매우 낮았다.
- 가족관계별로 보면, 자녀와의 관계에 만족한다는 비율이 68.4%로 가장 높고, 배우자(64.0%), 자기부모(61.9%), 형제자매(50.4%), 배우자부모(49.3%) 배우자형제자매(39.0%) 순으로 나타났다.
 - 배우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남편이 아내에게 만족하는 비율은 70.9%인데 반해 아내는 57.2%만이 남편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부부간 차이를 보였다.
 - 자기부모와의 만족률에서는 남자(62.1%)와 여자(61.8%)간에 큰 차이가 없으나,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남자가 56.4% 만족하는 반면, 여자는 41.4%에 그쳐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률을 보이고 있다.

< 전반적인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 정도(2012년, 만 13세이상) >		<성별에 따른 가족관계 만족도(2012년)>																																																																												
<p>(단위:%)</p> <table border="1"> <tr> <th>가족관계</th> <th>만족함</th> <th>보통</th> <th>불만족함</th> </tr> <tr> <td>전반적인가족관계</td> <td>54.2</td> <td>41.4</td> <td>4.4</td> </tr> <tr> <td>자녀와의 관계</td> <td>68.4</td> <td>26.3</td> <td>5.1</td> </tr> <tr> <td>배우자와의 관계</td> <td>64.0</td> <td>28.1</td> <td>7.9</td> </tr> <tr> <td>자기부모와의 관계</td> <td>61.9</td> <td>32.2</td> <td>5.8</td> </tr> <tr> <td>형제자매와의 관계</td> <td>50.4</td> <td>41.4</td> <td>8.2</td> </tr> <tr> <td>배우자 부모와의 관계</td> <td>49.3</td> <td>41.9</td> <td>8.9</td> </tr> <tr> <td>배우자 형제자매와의 관계</td> <td>39.0</td> <td>48.9</td> <td>12.1</td> </tr> </table>		가족관계	만족함	보통	불만족함	전반적인가족관계	54.2	41.4	4.4	자녀와의 관계	68.4	26.3	5.1	배우자와의 관계	64.0	28.1	7.9	자기부모와의 관계	61.9	32.2	5.8	형제자매와의 관계	50.4	41.4	8.2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	49.3	41.9	8.9	배우자 형제자매와의 관계	39.0	48.9	12.1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2012년 (만13세이상)</th> <th rowspan="2">계</th> <th colspan="3">(단위:%)</th> </tr> <tr> <th>만족</th> <th>보통</th> <th>불만족</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배우자와의 관계</td> <td>남성</td> <td>100.0</td> <td>70.9</td> <td>24.8</td> <td>4.3</td> </tr> <tr> <td>여성</td> <td>100.0</td> <td>57.2</td> <td>31.4</td> <td>11.4</td> </tr> <tr> <td rowspan="2">자기부모와의 관계</td> <td>남성</td> <td>100.0</td> <td>62.1</td> <td>32.6</td> <td>5.3</td> </tr> <tr> <td>여성</td> <td>100.0</td> <td>61.8</td> <td>31.8</td> <td>6.4</td> </tr> <tr> <td rowspan="2">배우자부모와의 관계</td> <td>남성</td> <td>100.0</td> <td>56.4</td> <td>39.3</td> <td>4.3</td> </tr> <tr> <td>여성</td> <td>100.0</td> <td>41.4</td> <td>44.9</td> <td>13.7</td> </tr> </tbody> </table>				2012년 (만13세이상)	계	(단위:%)			만족	보통	불만족	배우자와의 관계	남성	100.0	70.9	24.8	4.3	여성	100.0	57.2	31.4	11.4	자기부모와의 관계	남성	100.0	62.1	32.6	5.3	여성	100.0	61.8	31.8	6.4	배우자부모와의 관계	남성	100.0	56.4	39.3	4.3	여성	100.0	41.4	44.9	13.7
가족관계	만족함	보통	불만족함																																																																											
전반적인가족관계	54.2	41.4	4.4																																																																											
자녀와의 관계	68.4	26.3	5.1																																																																											
배우자와의 관계	64.0	28.1	7.9																																																																											
자기부모와의 관계	61.9	32.2	5.8																																																																											
형제자매와의 관계	50.4	41.4	8.2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	49.3	41.9	8.9																																																																											
배우자 형제자매와의 관계	39.0	48.9	12.1																																																																											
2012년 (만13세이상)	계	(단위:%)																																																																												
		만족	보통	불만족																																																																										
배우자와의 관계	남성	100.0	70.9	24.8	4.3																																																																									
	여성	100.0	57.2	31.4	11.4																																																																									
자기부모와의 관계	남성	100.0	62.1	32.6	5.3																																																																									
	여성	100.0	61.8	31.8	6.4																																																																									
배우자부모와의 관계	남성	100.0	56.4	39.3	4.3																																																																									
	여성	100.0	41.4	44.9	13.7																																																																									
<p>* 자료 : 통계청「2012 사회조사」, 국가통계포털(KOSIS), 13세이상 연령 중 각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만(해당 가족이 있는 경우) 응답함. - 그래프안의 수치(비율값)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되었으므로 각 항목의 합이 100%가 아닐 수 있음. - 만족함(매우 만족+약간 만족), 불만족함(매우 불만족+약간 불만족)</p>																																																																														

1) 가구통계는 2010년까지는 인구주택총조사자료(11월1일 기준시점)를 활용하고, 2012년 통계는 장래가구추계(7월1일 기준시점)의 추정값(예)을 사용함.
 - 2012년 통계청 사회조사 자료는 가족·교육·보건·안전·환경 부문에 대하여 실시한 표본조사로, 본문의 집계결과는 서울지역 만13세 이상 가구원(약 4,600여명)을 대상으로 2012. 5. 23.~6. 5.(14일)동안 조사하여 집계한 결과임.

<서울시민 34.1%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 여성 39.9%, 남성 27.9%>

- 결혼과 관련해선 2012년 만 13세이상 서울시민 34.1%는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은’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응답은 2008년(28.2%)보다 5.9%p 증가했다. 반면 ‘결혼해야 한다’는 견해는 2008년 68.0%→2012년 62.2%로 감소했다.
-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견해는 남성(68.5%)이 여성(56.3%)보다 높고, ‘선택사항’이라는 견해는 여성(39.9%)이 남성(27.9%)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서울여성이 남성보다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여기는 견해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결혼, 이혼에 대한 견해 > (단위:%)

구 분	계	결 혼				이 혼				
		해야 한다 ¹⁾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 말아야 한다 ²⁾	잘 모르겠음	해서는 안된다 ³⁾	할수도 있고 하지 않을수도 있다	이유가 있으면 하는 것이 좋다	잘 모르겠음	
2008년 (만15세이상)	전체	100.0	68.0	28.2	2.5	1.3	57.3	33.2	6.9	2.6
	남자	100.0	73.6	22.8	2.2	1.4	62.9	28.6	5.4	3.1
	여자	100.0	62.7	33.3	2.7	1.3	52.0	37.5	8.3	2.2
2012년 (만13세이상)	전체	100.0	62.2	34.1	1.7	1.9	44.8	41.9	10.4	2.8
	남자	100.0	68.5	27.9	1.5	2.1	50.3	38.5	8.1	3.1
	여자	100.0	56.3	39.9	2.1	1.8	39.8	45.2	12.6	2.4

*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국가통계포털(KOSIS), - 통계표안의 수치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되었으므로 각 항목의 합이 100%가 아닐 수 있음.
 1) 해야한다 : '반드시 해야한다'와 '하는 것이 좋다가 포함되어 있음. 2) 하지 말아야 한다 : '하지 않는 것이 좋다'와 '하지 말아야 한다'가 포함되어 있음
 3) 해서는 안된다 : '어떤이유라도 이혼해서는 안된다'와 '이유가 있더라도 가급적 이혼해서는 안된다'가 포함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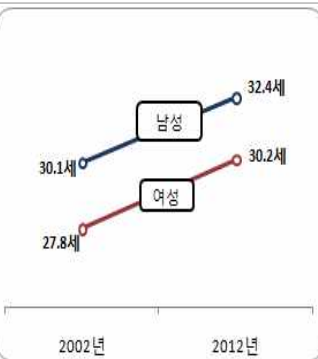
<2012년 평균초혼연령 男 32.4세, 女 30.2세..10년 새 남성은 2.3세 여성은 2.4세 늦어져>

- 2012년 평균 초혼연령은 남성 32.4세, 여성 30.2세로 2002년 대비 남성은 2.3세, 여성은 2.4세 각각 늦어지고 있다.
- 혼인연령층이 높아지면서 수치는 작지만 50세이상 결혼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50세이상 남성 결혼은 2002년 2,101건(남성 혼인 중 2.9%)에서 2012년 3,410건(남성 혼인 중 4.8%)으로 62.3% 증가했으며, 50세 이상 여성 결혼은 2002년 1,040건(여성 혼인 중 1.5%)에서 2012년

2,495건(여성 혼인 중 3.5%)으로 10년 새 2.4배 증가했다.

□ 또한, 남녀 모두 초혼인 부부 중 남자 연상 부부는 줄고, 동갑 및 여자 연상 부부가 증가해 2012년에는 동갑 및 여자 연상 부부가 초혼부부 중 31.0%를 차지하고 있다.

○ 초혼부부 중 남자연상 부부는 2002년 4만3,436건에서 2012년 4만1,889건으로 10년 새 1,547건(-3.6%) 감소한 반면, 동갑은 2002년 9,134건에서 2012년 9,505건으로 371건(4.1%) 증가, 여자연상은 2002년 7,514건에서 2012년 9,250건으로 1,736건(23.1%) 증가했다.

<평균초혼연령> 	<성별·연령별 혼인건수 및 구성비> (단위:건, %)						<초혼부부의 연령차별 혼인>			
	남자			여자			구분 (단위:건 % %p)	2002년 A	2012년 B	증감 B-A
	연령별	2002년 혼인 구성비	2012년 혼인 구성비	2002년 혼인 구성비	2012년 혼인 구성비	2002년 혼인 구성비				
계	72,696 (100.0)	71,695 (100.0)	70,548 (100.0)	71,839 (100.0)	72,696 (100.0)	71,839 (100.0)	초혼부부	60,084	60,644	560
19세이하	180 (0.2)	72 (0.1)	631 (0.9)	209 (0.3)			-남자연상	43,436	41,889	-1,547
20~24세	2,905 (4.0)	1,086 (1.5)	10,859 (15.4)	3,283 (4.6)			-동갑	9,134	9,505	371
25~29세	32,012 (44.0)	16,910 (23.6)	38,842 (55.1)	29,807 (41.5)			-여자연상	7,514	9,250	1,736
30~34세	25,411 (35.0)	32,560 (45.4)	12,218 (17.3)	25,921 (36.1)			초혼부부	(100.0)	(100.0)	
35~39세	5,718 (7.9)	11,580 (16.2)	3,523 (5.0)	6,172 (8.6)			-남자연상	(72.3)	(69.1)	-3.2
40~44세	2,816 (3.9)	4,157 (5.8)	2,195 (3.1)	2,418 (3.4)			-동갑	(15.2)	(15.7)	0.5
45~49세	1,552 (2.1)	1,920 (2.7)	1,235 (1.8)	1,534 (2.1)			-여자연상	(12.5)	(15.3)	2.8
50세이상	2,101 (2.9)	3,410 (4.8)	1,040 (1.5)	2,495 (3.5)						

*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혼인)」, 국가통계포털(KOSIS)
 - 비올값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되었으므로 세목의 합이 계(100%)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계에는 연령미상 포함(2002년 남자 혼인 연령미상 1건, 2002년 여자 혼인 연령미상 5건)

<2012년 전체 이혼 중 결혼생활 20년이상 부부 이혼 비중 30.0%로 4년내 이혼22.5%보다 높아>

□ 2012년 이혼 건수는 2만여건으로 가장 많았던 2003년(32천건)이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이혼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동거기간(실제 결혼생활) 20년 이상 된 부부 이혼 비중이 꾸준히 증가해 2010년부터는 결혼생활 4년내 부부 이혼 비중보다 높아졌다.

○ 이혼한 부부 중 동거기간 20년이상 결혼생활을 한 부부 비중은 2002년 18.6%에서 2012년 30.0%로 증가한 반면, 동거기간 4년 이내(실제 결혼생활 0~4년) 이혼비중은 2002년 26.4%에서 2012년 22.5%로 줄었다.

- 연령별로 봐도 50세이상에서 남녀 모두 이혼이 증가하고 있다. 50세이상 남성 이혼건수는 2002년 4,777건에서 2012년 7,400건으로 10년 새 2,623건(54.9%) 증가, 50세이상 여성 이혼 건수는 2002년 2,723건에서 2012년 5,278건으로 2,555건(93.8%) 증가했다.
- 남성 이혼 중 50세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2년 16.3%에서 2012년 36.7%로 증가, 여성 이혼 중 50세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2년 9.0%에서 2012년 26.0%로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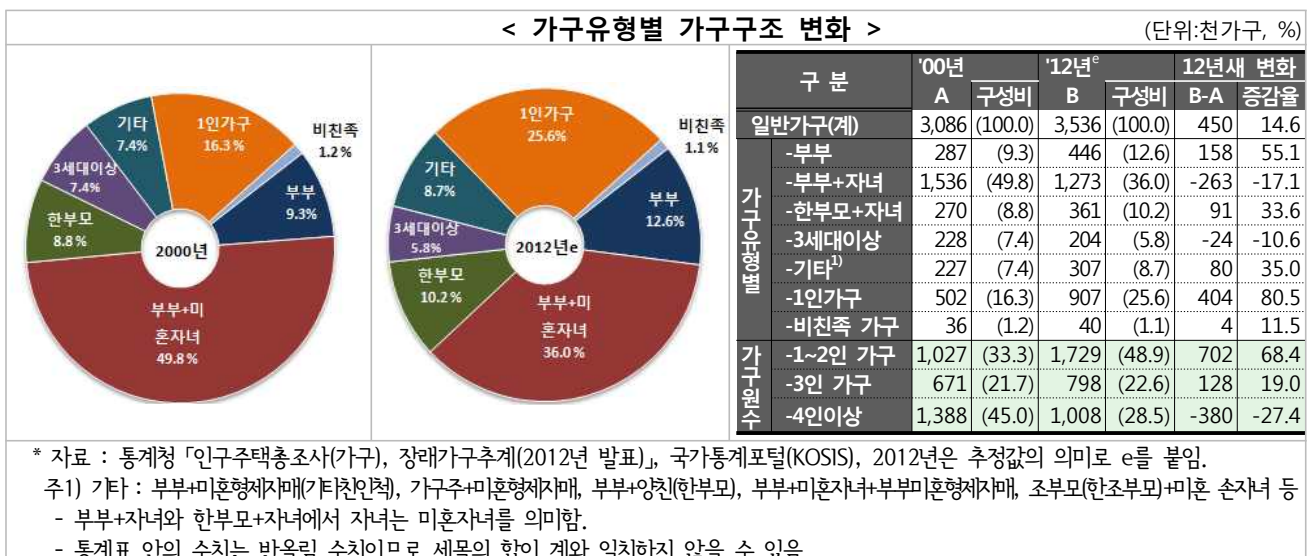
<동거기간별 이혼 및 이혼 비중 추이> (단위:건, %)									<성별연령별 이혼 건수 및 구성비> (단위:건, %, %p)										
동거기간별		년도별 추이							남성				여성						
		'02년	'03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02년	'12년	10년 새 증감	'02년	'12년	10년 새 변화				
이혼건수	계	29,351	32,499	24,615	23,319	23,920	21,768	20,617	20,177	이혼건수	계	29,351	20,177	-9,174	-31.3	30,344	20,310	-10,034	-33.1
	0~4년	7,737	7,747	6,428	6,355	6,311	5,440	5,083	4,538		-20대이하	2,503	628	-1,875	-74.9	5,585	1,487	-4,098	-73.4
	5~9년	6,478	7,097	4,900	4,105	4,448	4,164	3,993	3,825		-30대	11,621	4,874	-6,747	-58.1	12,905	6,121	-6,784	-52.6
	10~14년	5,328	5,885	3,871	3,269	3,553	3,173	2,916	2,905		-40대	10,450	7,275	-3,175	-30.4	9,131	7,424	-1,707	-18.7
	15~19년	4,351	4,824	3,568	3,243	3,384	3,051	2,921	2,847		-50세이상	4,777	7,400	2,623	54.9	2,723	5,278	2,555	93.8
	20년이상	5,456	6,945	5,848	6,347	6,224	5,940	5,704	6,062		계	(100.0)	(100.0)			(100.0)	(100.0)		
구성비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구성비	계	(100.0)	(100.0)			(100.0)	(100.0)		
	0~4년	(26.4)	(23.8)	(26.1)	(27.3)	(26.4)	(25.0)	(24.7)	(22.5)		-20대이하	(8.5)	(3.1)	-5.4		(18.4)	(7.3)	-11.1	
	5~9년	(22.1)	(21.8)	(19.9)	(17.6)	(18.6)	(19.1)	(19.4)	(19.0)		-30대	(39.6)	(24.2)	-15.4		(42.5)	(30.1)	-12.4	
	10~14년	(18.2)	(18.1)	(15.7)	(14.0)	(14.9)	(14.6)	(14.1)	(14.4)		-40대	(35.6)	(36.1)	0.5		(30.1)	(36.6)	6.5	
	15~19년	(14.8)	(14.8)	(14.5)	(13.9)	(14.1)	(14.0)	(14.2)	(14.1)		-50세이상	(16.3)	(36.7)	20.4		(9.0)	(26.0)	17.0	
	20년이상	(18.6)	(21.4)	(23.8)	(27.2)	(26.0)	(27.3)	(27.7)	(30.0)										

*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이혼)」, 국가통계포털(KOSIS) * 20대이하(29세이하), 30대(30~39세), 40대(40~49세)
 - 이혼율(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과 이혼비중(전체 이혼 중 차지하는 비중)은 다르므로 사용에 유의하기 바람.
 - 동거기간은 법적인 결혼(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결혼생활 시작에서 이혼까지의 동거기간을 말함.
 - 비율값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되었으므로 세목의 합이 계(100%)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동거기간별 계에는 동거기간 미상 포함된 수치임(2002년 1건, 2003년 1건)

- 이혼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은 57.3%('08년)→44.8%('12년)로 감소한 반면, '이혼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사항'이라는 응답은 2008년 33.2%에서 2012년 41.9%로 증가했다.
- 성별로 보면, '이혼해서는 안된다'는 남성(50.3%)이 여성(39.8%)보다 높고, '선택사항'이라는 견해는 여성(45.2%)이 남성(38.5%)보다 높았으며,
- 특히, 남성은 '이혼은 선택사항'이라는 견해가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혼해서는 안된다(50.3%)'가 '선택사항(38.5%)'이라는 견해보다 높은 반면, 여성은 '이혼은 선택사항'이라는 견해(45.2%)가 '이혼해서는 안된다(39.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인 가구 12년 새 68.4%↑, 가구 비중 2000년 33.3%→2012년 48.9%>

- 이처럼 결혼과 이혼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 변화 및 저출산·고령화 등의 사회변화로 서울의 가족형태가 1인·부부·한부모가구 등의 소핵가족형태로 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의 가족형태는 2000년에는 부부+미혼자녀 가구가 49.8%로 절반을 차지하고, 1인 가구 16.3%, 부부 가구 9.3%, 한부모 가구 8.8% 등으로 분포되었으나,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2012년^e에는 부부+미혼자녀 가정이 36.0%로 줄었으며, 1인 가구 25.6%, 부부 가구 12.6%, 한부모 가구 10.2% 등의 구조로 가족형태가 소핵가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처럼 가족규모가 작아지고, 가구분화가 계속되면서 1~2인가구가 2000년 102만7천가구(전체 일반가구 308만6천가구 중 33.3%)에서 2012년^e 172만9천가구(전체 일반가구 353만6천가구 중 48.9%)로 12년새 68.4% 증가했다.
- 반면, 4인이상 가구는 2000년 138만8천가구(전체 일반가구 중 45.0%)에서 2012년^e 100만8천가구(전체 일반가구 중 28.5%)로 27.4%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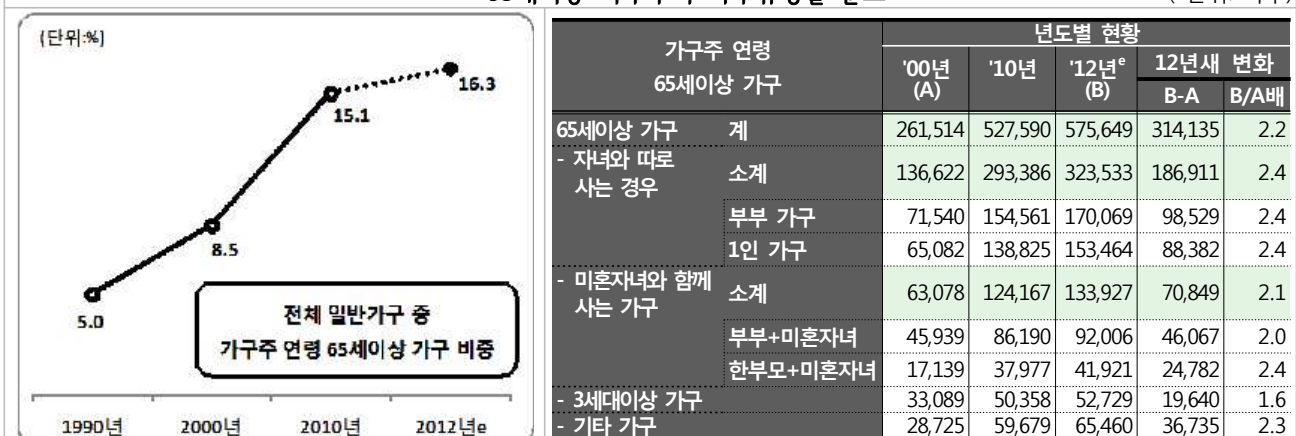


<65세이상 가구주 12년 새 2.2배 증가...2012년 일반가구 중 16.3% 차지>

- 고령화에 따라 65세이상 가구주가 2000년 26만2천가구에서 2012년^e 57만6천가구로 12년 새 2.2배 증가했으며, 전체가구 중 65세이상 가구주 비중은 2000년 8.5%(전체 일반가구 308만6천가구 중)에서 2012년^e 16.3%(전체 일반가구 353만6천가구 중)로 증가했다.
- 이중, 65세이상 1인 가구 및 부부가구는 2000년 13만7천가구에서 2012년^e 32만4천가구로 12년 새 2.4배 증가했으며,
- 65세이상 가구주가 미혼자녀와 동거하는 부부(한부모)+미혼자녀가구는 2000년 6만3천가구에서 2012년^e 13만4천가구로 12년새 2.1배나 증가했다.
- 이는 수명연장, 생활 및 건강수준의 향상으로 인하여 독립주거가 가능한 노인들이 증가했고, 자녀와 따로 살기를 희망하는 노인들의 수가 증가했을 뿐 아니라, 자녀의 독립지연 등으로 65세이상 가구주 부모가 미혼자녀와 동거하는 가구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65세이상 가구주의 가구유형별 분포 >

(단위: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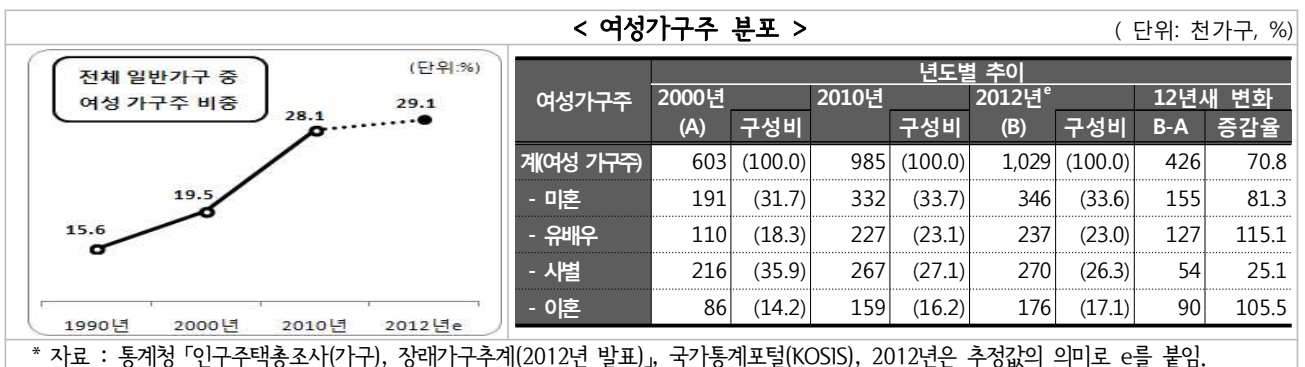
가구주 연령 65세이상 가구	년도별 현황				
	'00년 (A)	'10년	'12년 ^e (B)	12년새 변화 B-A	B/A배
65세이상 가구 계	261,514	527,590	575,649	314,135	2.2
- 자녀와 따로 사는 경우					
소계	136,622	293,386	323,533	186,911	2.4
부부 가구	71,540	154,561	170,069	98,529	2.4
1인 가구	65,082	138,825	153,464	88,382	2.4
- 미혼자녀와 함께 사는 가구					
소계	63,078	124,167	133,927	70,849	2.1
부부+미혼자녀	45,939	86,190	92,006	46,067	2.0
한부모+미혼자녀	17,139	37,977	41,921	24,782	2.4
- 3세대이상 가구	33,089	50,358	52,729	19,640	1.6
- 기타 가구	28,725	59,679	65,460	36,735	2.3

*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가구), 장래가구추계(2012년 발표)」, 국가통계포털(KOSIS), 2012년은 추정값의 의미로 e를 붙임.

- 일반가구 :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가족과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 1인 가구,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사는 5인 이하의 가구로 총 가구에서 집단가구 및 외국인가구를 제외한 것임.
- 3세대이상 가구 : 부부+자녀+부모, 부부+자녀+손자녀, 부부+자녀+손자녀+부모, 부부+자녀+부모+조부모 등
- 기타가구 : 부부+미혼형제자매(기타친인척), 가구주+미혼형제자매, 부부+양친(한부모), 조부모(한조부모)+손자녀, 비친족가구 등
- 표에서 부부가구는 가구주 연령은 65세이상이고, 가구주의 배우자는 65세이상일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음.

<여성가구주 12년 새 70.8%↑, 전체 일반가구 중 29.1% 차지>

- 여성 가구주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e 102만9천가구로 2000년 (60만3천가구) 대비 70.8%(42만6천가구) 증가했으며, 여성가구주 비율은 2000년 19.5%(전체 일반가구 308만6천가구 중)에서 2012년^e 29.1%(전체 일반가구 353만6천가구 중)로 증가했다.
 - 여성가구주 증가율(70.8%)이 일반가구 증가율(14.6%)보다 5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 2012년^e 여성가구주의 혼인상태별 분포는 미혼 33.6%, 사별 26.3%, 유배우 23.0%, 이혼 17.1% 순으로 분포되었다.
 - 지난 12년 새 혼인상태별 여성가구주의 증가율은 유배우 가구에서 115.1% (12만7천가구) 증가, 이혼에서 105.5%(9만가구) 증가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 이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 가치관 변화 및 평균수명 증가 등으로 미혼, 이혼, 사별이 증가하고, 직업 등의 이유에 의한 분리 가구 증가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 조영삼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장은 “이번 가구분야 통계 분석을 통해 서울시민의 가족관 및 가족구조의 변화를 알 수 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정 및 시민생활과 관련있는 통계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공개하고, 정책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자세한 내용 참고 : 서울시민 가족관 및 가족구조 주요변화 분석(stat.seoul.go.kr)